

세계화된
스포츠 축구가 허구라면...
노마디즘의 미래,
흑산도와 정약전의
삶의 비의秘意
광릉의 세밀화와

과학, 그리고 교황

“사람들이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 시대 속에서 역사와 경제, 민족, 성, 인종, 종교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살아 있는 축구인류학 책”

3월 하순에서 4월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종합일간지 문화면은 ‘축구인류학’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책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를 앞에 두고 새삼 축구를 축구 그 이상의 의미로 보았다. 그리곤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야만의 전쟁터’ <동아일보>, ‘세계화 물결 속의 다양한 사회 모습을 접하는 도구’ <한겨레> 등과 같은 본문의 묘사와 인식을 같이했다.

<한겨레>는 이 책을 두고 “사람들이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 시대 속에서 역사와 경제, 민족, 성, 인종, 종교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살아 있는 축구인류학 책”이라고 평했다. 특히 “연구서나 이문서 혹은 가설로 난무한 추측성 분석이 아니고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이어서 더욱 흥미

진진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축구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민족 인종 문화적 이데올로기서”라고 정의했다. 그 실례로 “한일 관계는 다루지 않았지만 저자는 축구를 통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인종 분쟁, 스코틀랜드의 가톨릭과 신교의 갈등, 스페인 카탈루냐 민족주의, 이탈리아의 스포츠와 정치의 유착 등을 들춰 냈음을 들었다. 신문은 또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을 것”이라며 “축구처럼 세계화된 스포츠도 갈등의 대리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세계화는 허구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국일보>는 자크 아탈리의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 대해 “노마디즘의 스펙트럼을 600만년 인류사로 다시 한 번 확장한 것”이라며 “풍부한 사료를 근거로 고대 원시사회와 중세 봉건사회, 근대 국가시대와 중상층의, 세계자본주의 등의 지난 역사를 시대별 정착민과 노마드의 대립과 투쟁의 과정으로 고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자크 아탈리의 이 인류 오디세이가 매력적인 것은 그가 문명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 지평과, 변화와 지향의 건강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여정에 동참하는 일은 얼마간 땀 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독특한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자크 아탈리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적 삶을 뜻하는 노마디즘이 미래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렇다면 미래의 노마디즘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되물은 이 신문은 “기업은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유랑극단이나 순회공연 서커스단이 될 것이고, 국가는 아주 가끔씩 지나가는 대상 행렬(노마드)을 붙잡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란 지은이의 예측으로 답을 대신했다.

지난달 각 일간지 문학담당 기자들이 소설가 한승원을 만났다. 작가 말마따나 “서울에서 쓴 글들은 새끼를 먹여살리려는 거였고, 내려가서 쓴 것들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글” <경향신문>이라고 한, 그 ‘글’이 소설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 《흑산도 하늘길》이 나온 직후 <서울신문>은 “2003년 출간한 ‘초의’ 보다도 실은 먼저 쓰기 시작한 작품이고, 이번 소설을 쓰느라 ‘사서삼경’을 다시 공부했으며, 정약용·약전 형제의 현학을 이해하기 위해 주역에 빠져야 했다”는 작가의 회고

를 들려주며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곡진하게 들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신문은 ‘왜 정약전이었을까’ 하고 궁금증을 표했다. 그러곤 “삶의 비의(秘意)를 고민한 작가에게 약전의 생애는 ‘정답’ 자체였다”고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역시 “한승원이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도시적 삶을 떠나 고향 장흥에 ‘해산토굴’이란 집필실을 마련한 것도 정약전·약용 형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소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책 《세밀화로 보는 광릉숲의 풀과 나무》에 대해 “한 편의 전원시 같으나, 초야에 묻혀 사는 시인의 숨씨가 아니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일하고 있는 공해진 권순남 이승현 등 세 명의 세밀화가들이 공동으로 쓴 식물 관찰기의 한 대목으로 광릉숲 외국수목원을 둘러보다가 만난 ‘흰털제비꽃’에 대한 이름답고 웅장진 메모”라고 보도했다. 서평자는 “사실 숲의 중요성에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자원, 생물 다양성, 휴양 등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의 역사 및 정서가 담긴 문화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 숲의 풀과 나무에 대한 보존 관리의 첫 걸음이 바로 세밀화 작업을 통한 식물의 분류와 표본 확보로서, 표본은 한 식물이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 서식했는가를 따지는 식물의 호적등본에 해당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값어치를 인정할 만 하다고 했다.

일본인 아마모토 요시타카가 쓴 《과학의 탄생》 역시 많은 신문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양서 가운데 하나다. <한겨레>는 “지금은 과학 교과서의 상식이 된 중력과 자력이라는 자연의 힘이 고대 이래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추적하는 과학 역사서”로 정의했다. 한편 으론 “과학의 발전을 ‘일직선의 진보’나 ‘천재 영웅의 작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지은이가 말하려는 바는 ‘역사의 어우러짐’”이라며 “지은이는 근대 과학의 탄생을 상징하는 중력의 발견이 여러 가설과 주장,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상황들과 어울려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지은이가 1960년대 당시 도쿄대 전공투 의장으로서 격렬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유명한 ‘도쿄대 야스다강당 점거농성 사건’의 주도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 과학자로서 “수학과 기하학, 정량적 실험정신의 과학적 방법론이 하나로 난 오솔길을 걸어오지 않았음”을 책을 통해 실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의 역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베네딕토 6세가 즉위한 최근의 변화와도 맞물리며 주목을 끈 책이다. <경향신문>은 2천년 가까운 교황의 역사를 다룬 본문을 인용, “예수의 수제자인 성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로서 로마교회는 물론, 세속정치를 지배함으로써 서양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교황은 16세기 종교개혁을 계기로 권력이 약화되다가 오늘날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

<출판저널> 편집부

기타 언론이 주목한 책들

- 《미국시대의 종말》 찰스 A. 쿵찬, 김영사
- 《이탁오 평전》 엔리 에산·주지엔구오, 돌베개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푸른숲
- 《나는 맹수의 눈을 갖게 되었다》 조승연, 랜덤하우스중앙
-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 리더북스
- 《고려도경》 서금, 황소자리
-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최재천, 삼성경제연구소
- 《세계의 역사 교과서》 이시타와 노부오 외, 작가정신
- 《나마스테》 박범신, 한겨레신문사
-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켄 웨더포드, 사계절
- 《히틀러 최후의 14일》 요아힘 페스트, 교양인
- 《투견》 김숨, 문학동네
- 《문화로 읽는 세계사》 주경철, 사계절
- 《영덩이의 재발견》 장휘 엔니그, 예담
-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 황금가지
-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휴머니스트
- 《브랜드 제국 P&G》 네이버스 다이어리의, 거름
- 《종교가 사악해질 때》 찰스 킴볼, 에코리브르